



교사이야기

상상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교육을 'DESIGN'하는 김상기 선생님

융합적 사고가 새로운 패러다임인 시대 기계와 디자인을 융합하는 작업은 단지 물리적인 접목이 아닐 것이다. 기계의 원리와 본질을 역동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발현시킨다는 면에서 멋진 열정으로 다가온다. 이 열정이 사제동행의 신명과 따뜻함으로 다시 융합되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키워주는 에너지로 폭발한다면! 바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움을 창출하며 직업교육의 길잡이로 든든하게 서 계신 김상기 선생님(전주공업고등학교)을 연상하게 하는 말이다.

● 기능 인재들의 발명특허출원과 대한민국 인재상

선생님께서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티고 등에서 재직하시며 기능 영재 학생들을 8년 동안 지도해 오셨다.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직업과 연계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은 교육자로서의 소명 때문이었다. '제품 디자인 기능 영재반' 운영을 위해 선생님께서는 다각도로 예산을 끌어 오고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이해를 높인다.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 강사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고 있다. 분야의 전문가를 교육적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매칭해주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선फल운동에 참여했고, 전자앨범 등을 제작해주며,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도 한다고 한다.

영재반은 평소 방과 후 시간은 물론 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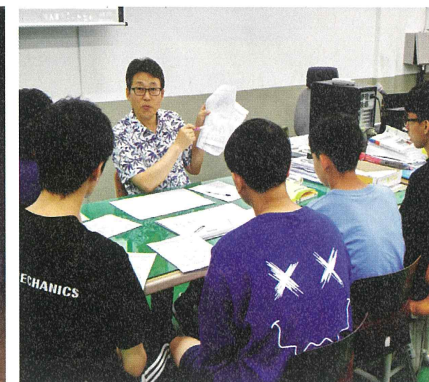


일과 방학도 없이 항상 운영된다.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다는 신념으로 선생님 역시 학교를 지키신다. 추석연휴에도 아이들이 좋아서 나온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각종 기능경기대회와 공모전, 콘테스트 등을 휩쓸게 되었다. 무엇보다 발명특허를 2개나 갖게 되었는데, '차도용 충격발전기'와 '탈취구두주걱'이 그것이다. 나아가 2011년과 2012년에 2명의 학생이 '대한민국 인재상(창의, 발명, 기술부문)'에 선정되는 벅찬 감동이 있기도 하였다.

현재는 5명의 학생이 맘을 홀리고 있는데, 기계와 그림에 관심이 많아 제품디자인이 꿈인 정승일 학생은 "선생님께서 컴퓨터나 재료 등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지원해 주시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놔두고 격려하며 지원해 주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 나오게 되고 말도 잘 듣게 되는 거 같다. 많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였다. 문득 훈훈하고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고 선후배로 엮어진 형제가 있는 꿈과 미래를 짓는 집 같은 학교가 떠올랐다.

● 끊임없는 배움과 나눔으로 단련하는 교사

교사 임용을 받고 자신의 첫 수업 동영상 보면서, 수업을 잘 하고 싶었던 부푼 꿈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쥐구멍이라



도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으셨다. 이후 자청하여 공개 수업을 하고 한 해 평균 150시간 정도의 연수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자기연마를 하셨다. 훌륭한 인재를 만나기 전에 먼저 교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으셨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교육자다운 성품(기품), 변화에 능동적인 수용(머리), 새로움을 창출하는 열정(손과 발)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성실한 열정으로 교육자로서의 발전을 거듭하고 계셨다.

지금은 축적된 노하우를 나누는 일도 많이 하신다. 교육청 주최 세미나, 직무연수, 한국직업전문가포럼, 전국교사역량강화연구회 등 각종 교과연구대회나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서 사례 발표를 해 오셨다. 학교에서는 취업역량강화 및 매력적인 직업계고 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을 운영하신다.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 CLEW-UP 교사 동아리'를 7년째 이끌고, 고경력 교사들의 노하우와 저경력 교사들의 기발함을 공유하

기 위해 '교사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을 16명의 교사와 함께 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학교 현장에 찾아가 교육과정운영, NCS시범운영연구학교 등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을 하신다. 국가직무능력성취기준 개발, 교과서 저작은 물론 대학 강의도 병행하고 계시다.

● 대한민국 스승상, 휴식처가 되는 느티나무처럼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한 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던 선생님! 묵묵히 걸어오셨던 그 숨겨진 길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2015년에 대한민국 스승상(복조근정훈장)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기관추천이 아닌 학부모와 동료교사와 학생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 더 보람되고 기쁘셨다. 선생님께서는 느티나무를 좋아하시는데 수형이 균형미가 있고 멋



질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나뭇잎이 각기 다른 빛깔로 맞아주고 휴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무에 비해 수명도 길다고 가지런하고 건강한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으신다. 바로 선생님께서 느티나무처럼 아이들에게 계속 큰 그늘이 되어 주기를 고대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고 꿈을 키워 주는 곳이며, 좋은 선생님이란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수업은 흥미로워야 한다면 수업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책걸상 배열로 공간 편집도 해보며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선생님! 자유로움 속에 질서가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호흡하고 사랑과 존경과 열정이 넘쳐나는 교실을 꿈꾸는 선생님! 무엇보다 김상기 선생님과 교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다. 'DESIGN'을 꿈꾸는 교실! 교육을 'DESIGN'하는 선생님!

글 이순선 여산고등학교 수석교사